

 <b>국토교통부</b>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<b>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</b> 
	배포일시	2017. 1. 24(수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 건축문화경관과	담당 자	• 과장 이경석, 서기관 홍성호, 주무관 신동희 • ☎ (044) 201-3776, 3777	
보도 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## 국토교통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KTX, 고속도로 등 주요지역 민·관 합동경관점검반 가동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「민·관 합동경관 점검반」을 긴급 가동·운영하기로 하였다.
  - 이를 통해, 내·외국인 방문객들의 주요 이동경로인 KTX, 고속도로 주변과 주요 역사,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방치·적재, 불법 현수막 설치 등 우리 국토경관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집중 점검하여 개선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.
- 이를 위해, 국토교통부는 점검대상 구간별(붙임참조)로 건축도시공간 연구소(AURI) 등 경관 전문가 2~3명과 시설물 운영기관인 한국도로공사, 한국철도공사,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들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였으며,
  - 현장 점검결과 경관 저해 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거나 해당 사업자 등의 협조를 얻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  - 또한, 이번 합동점검과 병행하여 국토·지방도는 지방국토관리청 등 관할 기관에서, 경기장 주변 등 도심은 해당 지자체 등에서 상시적으로 점검토록할 계획이다.
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경관 저해요소를 찾아내어 시정하거나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평창동계올림픽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우리나라 국격을 높이겠다” 고 말하였다.